

한국인 자신의 교회설립자 최태용

박 승 인 (교수, 협성대)

1. 들어가는 말 - 최태용 목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

최태용 목사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의 신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소개는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펴낸 『최태용 전집』(1-6)의 내용에 의존한다.¹⁾

1897년 함경남도 영흥 출신인 최태용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국비생 시절인 1915년 기독교에 입교했다. 1916년 초겨울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소명을 받은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1918년 연희전문학교 신학부(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그는 1920년 가을 일본 도쿄에 가서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에서 공부하며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

최태용의 초기 활동은 문서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학 잡지는 「천래지성」과 「영과 진리」이다. 1925년 6월부터 1927년 6월까지 「천래지성」 총 24호를, 1929년 1월부터 1939년 7월까지

1) 최태용/ 채문규 역, 『최태용 전집1』(서울: 도서출판 꿈꾸는 터, 2009) (이하 『최태용 전집』), 7-9쪽.

총 10권 119호의 「영과 진리」를 발간하였다. 이 모든 신학 잡지의 제작과 발간은 거의 다 최태용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작비는 잡지 구독자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제도적 교회의 부정적 모습을 질타하여 비교회주의를 주장하던 최태용이 1935년 12월 22일 또 하나의 제도적 교회인 조선복음교회(현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세운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그가 새로운 하나의 제도적 교회를 설립할 때 내세운 기치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복음교회의 삼대 표어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은 복음적이지요 생명적이어라.

둘째,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셋째,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본 글은 우선 최태용의 교회론을 소개 한 후 그의 교회론의 신학적 토대인 동시에, 그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인 ‘영적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적 교회를 설립한 최태용의 신학적 입장을 살펴본 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최태용의 교회론 - 비교회주의

최태용은 당시 조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참 생명성을 상실하고 고정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았고, 이 원인을 선교사들이 전한 근본주의에서 찾았다.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영원히 산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선교가 사람의 신앙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그 결과를 조선 교회에서 잘 본다.”²⁾

근본주의가 신앙의 생명성을 상실하는 것은 그것이 닫힌 체계의 지식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지식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

2) 최태용, “영적 기독교의 과제와 그 현재적 개정”, 『최태용 전집 5』, 75쪽.

본주의에 있어서 일체는 모두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 이미 안 한 계 안의 지식이고, 그것은 미지를 항상 모험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생명적인 것일 수는 없다.”³⁾

첫째, 최태용은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비판한다. 첫째, 사교적 전도이다. 이는 복음 자체보다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전도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견 단기간에는 성공적인 듯이 보이나, 참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영이 충만하고, 평화, 환희, 사랑, 권능이 넘치는 교회’⁴⁾가 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만다.

둘째, 생명을 상실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대치한 모습이다. 본래 신령한 교회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성령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어 성령의 일을 대신’⁵⁾하는 것이다. 최태용은 옛 유대인이 안식일 규칙에 얽매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박해한 것을 예로 들면서, 성령과 생명이 떠나고 규칙 만능으로 행하려고 하는 당시의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한다.⁶⁾

셋째, 하나님 없는 교회이다. 최태용은 당시의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교회,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교회’⁷⁾라고 비판한다. “교역자는 청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우스운 모양과 이상한 목소리로 청중이 재미 붙일 이야기를 하여 무리를 끌고자 한다.”⁸⁾ 이러한 교역자는 극장 배우와 다를 바 없다고 최태용은 비판한다.

넷째, 진리를 싫어하는 교회이다. 최태용은 기독교의 진리를 묘사하기를 ‘죄를 죄라 하며 의를 의라’하며, ‘어두움을 깨뜨리는 빛’이라고 한다.⁹⁾

3) 앞의 논문, 76쪽.

4) 최태용, “교회 諸相(제상)”, 『최태용 전집 1』, 125-126쪽.

5) 앞의 논문, 127쪽.

6) 앞의 논문, 128쪽 참조.

7) 앞의 논문, 128쪽.

8) 앞의 논문.

9) 앞의 논문, 129쪽.

이 날 선 검과 같은 진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불허하는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익을 좇는 교회로서 진리를 싫어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다섯 째, 기도 못하는 신자이다. 신앙 타락의 특징을 기도 못함에서 찾는 최태용은 당시의 교회에 산 기도가 없음을 비판한다. 당시 신자들도 물론 기도하기는 한다. 최태용에 의하면 “그러나 이는 규정의 기도, 의문적(儀文的)기도, 죽은 기도이다.”¹⁰⁾

이상의 다섯 가지로 당시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최태용은 이러한 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지칭하여 교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참 신앙과 참 신학에 근거하지 못한 교회는 형식과 교리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주의라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교회, 생명에서 옳긴 교회, 그리하여 사람이 기독교의 일체를 다 교회에 붙이고, 교회가 곧 기독교가 되게 하여, 교회를 주창 유지함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그러나 교회도 되지 아니한다) 이 교회는 교회주의인 것이다. ...영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신경(信經)의 반복 암송, 의식의 행례, 이로써 만족하며, 안에는 없는 것을 밖에는 단장코자, 사회의 칭찬을 넓히는 사업을 떠든다.”¹¹⁾ 최태용은 이러한 교회주의의 교회를 “참이 떠난 허위요, 생명이 떠난 사각(死殼)이라, 없는 것을 있는 듯이 행하는 사기꾼 (Imposter)이며, 일종의 우상”이라고 정죄하며, 참 하나님은 이 거짓된 종교를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¹²⁾

당시 조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한 최태용의 교회론은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바, 최태용은 일본에 유학중이던 20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기에 우치무라 간조의 신학에 심취하여 그를 성령의 인도로 만난 바른 안내자로 여길 뿐 아니라, 우치무라 간조의 신학과 스스로의 사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

10) 앞의 논문, 130쪽.

11) 최태용, “비교회주의”, 『최태용 전집 1』, 428쪽.

12) 앞의 논문, 428쪽 참조.

기까지 하였다. “그 때에 나는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나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의 바닥까지 울리는 것이었다. 그 때에 저 위대한 사도의 호흡을 나의 호흡으로 하면서 저를 배운 일은 지금 돌아보아도 상쾌한 일이다. 그에게 배워 기초를 닦음이 없었더라면 나의 금일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¹³⁾

최태용이 볼 때 조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교회에 수입된 기독교 그 자체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 비판의 중심에는 제도나 교회 조직의 문제보다는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최태용의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그의 교회론의 핵심이다. 그에게 있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교회에 속하는 것 그 자체가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가 되어야 한다. 다음의 말을 보면 이러한 그의 입장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교회 기분, 교회 경건의 경향에 반대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무교회주의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최선의 영적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진하여 교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 교회를 부정함도, 교회에 구속받음도 그것이 다 보다 완전히 영에 이르고자 하는 일이어서 이 표면상으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사상은 더 깊은 데에 있어서 하나에 귀결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그의 입장을 최태용은 ‘비교회주의’라고 명명한다. 최태용이 주장하는 비교회주의는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와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무교회주의가 무-교회-주의라면, 비교회주의는 비-교회주의이다. 무교회주의의 극복 대상이 제도적 교회라면, 비교회주의의 극복 대상은 교회주의이다. 최태용이 주장하는 비교회주의는 교회주의에 대한 비판이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리고 최태용이 반대하여 투쟁해야 할 대상

13) 최태용, “영계(靈界)의 안내자”, 『최태용 전집 2』, 129쪽.

14) 최태용, “외적 권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태용 전집 2』, 410쪽.

으로 지목하는 교회주의의 본질은 제도적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설명된 대로 형식과 교리 중심의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참 생명이 없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주의의 중심에는 미국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고정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고정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에 대한 최태용의 비판, 또 그러한 신앙에서 비롯된 교회주의에 대한 최태용의 전투선언은 당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한 바른 신학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에 한국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내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선각자적 예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상황에 직면하여 참 교회운동의 기치를 들고자 한 최태용의 포효가 바로 비교회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태용이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외침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아! 내 어찌 조선의 기독교회를 버리리오. 그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더 높은 진리로 새로워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무슨 희생을 아끼리오. 나는 조선교회를 버리지 않으리라."¹⁵⁾ 우리는 교회에 대한 최태용의 이러한 입장이 그가 무교회주의를 설명할 때조차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교회주의는 사람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교회 경향에 대한 반대로 신앙을 그 높은 의미에서 주장하는 일이고, 그것은 교회가 불필요하다든지, 교회가 없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다."¹⁶⁾

참 신앙을 위한 교회의 필요불가결성과 참 신앙을 가로막는 당시 교회의 현실적 양태 사이에서 최태용은 고민했을 것이며, 그 고민은 교회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교회주의를 배격하는 비교회주의로 승화되었다. 이러한 그의 신학이 나중에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거니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것처럼 최태용의 교회론이 사상적 변화에 따른 우연적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15) 최태용, "조선 교회 잡감(雜感)", 『최태용 전집 2』, 383쪽.

16) 최태용, "외적 권위의 필요에 대하여", 『최태용 전집 2』, 409쪽.

한 그의 중심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교회주의, 비교회주의를 거쳐 복음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일견 입장 변화처럼 보이는 최태용의 교회론은 - 그 근본 동기에서 고찰할 때 - 사실상 동일한 원리의 상황에 따른 변용인 것이며, 이는 그의 신학의 중심 사상인 ‘영적 기독교’에 등장하는 영과 진리의 변증법적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⁷⁾

3. 최태용 신학의 중심사상 - ‘영적 기독교’

‘영적 기독교’은 최태용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 사상이다. 최태용 스스로가 ‘영적 기독교’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그 저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런데 차제에 나의 독자들은 나의 신앙, 나의 신학, 나의 주창에 대한 계통적인 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글을 읽음에도 유효할 것이며, 또한 나의 술어의 이해에도 편의가 있게 될 것 같다.”¹⁸⁾

최태용이 천명하듯이 ‘영적 기독교’는 최태용의 신학 체계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는 사상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상의 틀이 하나의 논문이나 책으로 한순간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26개월에 걸쳐 - 다른 활동 및 저작과 함께 - 꾸준히 형성되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긴 시간의 연재 저작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사상 체계는 그 연재 저작 과정 중 형성된 그의 여타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의 교회론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화석화된 당시 조선 교회를 살리는 길로서 최태용은 ‘영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바, 영적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역동적 관계에서 찾는 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발행한 잡지의 제목이기도 한 ‘영과 진리’의 관계이

17) 최태용은 1929년 7월 『영과 진리』 제 7호에서 시작하여 1931년 7월 제 33호에 이르기까지 26개월 동안 20호에 걸쳐 ‘영적 기독교론’을 전개한다. 전병호, 『최태용의 생애와 사상』,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3, 73쪽 참조.

18) 최태용, “영적 기독교(1)”, 『최태용 전집 2』, 124쪽.

다. ‘영’이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또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최태용 자신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이나? 영이란 창조자, 절대자의 본질로 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또 설명되는 것이다. 이는 영은 진리로서 자기 현현을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진리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영이 구체화한 것이다. 즉 진리는 영의 언표이다. 사람은 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리를 계시 받음으로 영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란 사람이 이해한 영이다. 사람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받은바 영을 진리로서 언표하는 것이다. 고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는 진리주장, 이는 곧 영인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인 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언표인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 것이다.¹⁹⁾

최태용에게 있어서 영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본질로서, 원래적으로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은 또한 설명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명되지 아니함’과 ‘설명됨’ 사이에 최태용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 신학적 중심 주제들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인 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영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영이 진리로서 자기를 현현함이 우리에게 영이 알려지는 유일한 근거이다.

김경재는 이러한 최태용의 신학적 근본 동기를 19세기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나온 20세기초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운동에 비긴다. “그 점에서 최태용은 칼 바르트와 같은 입장에 선다. 인간은 자기

19) 최태용, “영적 기독교(2)”, 『최태용 전집 2』, 138쪽.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곧 영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상상하고 이론화한 모든 종류의 형이상학적 신관은 우상론이 되고 만다.”²⁰⁾

본질적으로 영인 하나님이 인간이 처한 시대적 상황마다,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알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최태용이 말하는 바,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영의 현현이다. 영으로부터 진리로 구체화되고 현현되는 과정은 그 역의 과정을 불허한다. 진리는 ‘사람이 이해한 영’이기는 하나, 그것이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해일 수는 없다. “사람의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태용이 전개하는 모든 신학적 논의의 배후에 이러한 근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를 고찰할 때, 우리는 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인 영,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인간이 처한 상황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언표되는 진리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으로 영과 진리의 관계를 설정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최태용의 사상 속에는 그러한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영과 진리 사이의 근원적 연결성에 대한 생각이 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진리로 언표되는 과정을 통하여 소진되어 버리지 않고, 인간에게 이해됨으로써 그 이해의 지평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는 영의 본질이 진리를 참 진리로 만드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적 상황이 없으면 현현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진리로 언표되지 않는 영의 속성이 그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참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직면하는 우리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응답 이외의 것이 아니다.

4. 제도적 교회의 설립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최태용은 감독과 서

20) 김경재, “‘영적 기독교론’에서 영과 진리의 관계”, 291쪽.

울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취임한다.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의 선구자 우치 무라 간조에게서 신앙과 신학 훈련을 쌓은 최태용이 무교회주의와 결별하고 복음교회를 창립한 사건은 최태용 사상의 실천적, 운동적 성격을 명백히 해준다. 그는 교회 밖에서의 신앙 운동으로는 우리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과감히 자신의 옛 틀을 버린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최태용이 고정된 원리나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태용은 말한다. “이제 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호령하는 자 노릇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이게 된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에 충만되어 나타나는 복음이다.”²¹⁾ 그렇다고 해서 최태용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제도적 교회에 대한 전적인 긍정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의 제도적 교회 수용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교회가 만일 생명적 신앙과 분리된, 다만 기관, 제도의 교회일 때 나는 그런 교회를 용인할 수 없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장소, 신앙이 항상 생생한 모임, 이것이 교회이다. ... 요컨대 나의 교회관은 무교회주의를 통하여 재인식한 교회며 무교회주의의 원리적인 것이 교회로 재현된 교회이다.”²²⁾

최태용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무교회주의가 영원한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의 대칭 운동으로서의 무교회주의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무교회주의를 교회 비판이라고 한다. 교회가 있어서 (필자의 강조) 무교회주의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요, 반동으로서 무교회주의다.”²³⁾ 그러하기에 최태용은 제도적 교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무교회주의는 수용하되, 제도적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무교회론 혹은 무교회 신앙에는 반대한다. “교회는 제도로의 교회가 부정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 존재의 적극적 면이 충실된다. 이는

21) 최태용, “교회, 무교회주의 교회”, 『최태용 전집 4』, 262쪽.

22) 앞의 논문.

23) 최태용, “기독교의 교회적 사명”, 『최태용 전집 4』, 383쪽.

교회 자신의 존재 문제로 그렇게 진전되어 나아가야 할 일이다. 교회에 있는 인간적인 교회주의 때문에 무교회를 말하며, 무교회 신앙의 입장을 취함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²⁴⁾

교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궁극적 목표는 **참다운 교회**이지, **교회의 폐지**가 아니다. 이렇게 고찰해볼 때에 최태용의 무교회주의 혹은 비교회주의는 교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 이외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중심 원리로서 그가 제창한 영과 진리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그의 교회론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제도적 교회를 비판하는 최태용의 포효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리한다. “교회에 복음이 없고 신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다만 사람, 못된 사람끼리의 회중이다.”²⁵⁾ 교회에 복음이 없고 신자에게 생명이 없는 원인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에 있다. 최태용이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 모습은 앞에서 약속한 영과 진리의 영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²⁶⁾

그러나 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구체적 정황 속에서만 우리에게 들려진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교회이다. “복음과 교회의 관계는 유기적이다. 복음은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는 복음을 보지(保持)한다. 복음으로써 창조된 교회는 그것이 복음의 자리이다.”²⁷⁾ 복음과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는 최태용에게 구체적인 교회의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태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교회성을 띠고 있는 것”²⁸⁾이라고 주장한다.

24) 앞의 논문, 385쪽.

25) 최태용, “생명을 가졌느냐?”, 『최태용 전집 3』, 273쪽.

26) 최태용, “사이비한 신앙”, 『최태용 전집 3』, 292-293쪽 참조.

27) 최태용, “복음과 교회”, 『최태용 전집 3』, 407쪽.

28) 최태용, “하나님 말씀의 교회성”, 『최태용 전집 4』, 275쪽.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과 함께 최태용은 복음의 상황성을 설파한다. 소위 순수한 복음, 상황과 상관없는 복음, 구체적인 교회와 별개의 복음은 관념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혹은 말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다. ...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의 순수한 기독교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 무교파적인 순 복음, 만일 사실로 그런 것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기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관념적인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최태용의 이러한 견해는 복음의 상황성을 견지하는 현대 상황신학의 논의를 시대에 앞서서 제기한 선각자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상황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독일 신학자 퀴스터 (Volker Küster)에 의하면 “상황신학이라는 개념은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토의의 결과로 생겨난 개념이며, 오늘날까지 논의되었던 다른 모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³⁰⁾

복음이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교회와의 관련 하에서만 선포되고 전승되며, 각각의 상황 내지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신약성서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신약성서의 문헌들은 각각 상이한 언어, 전승, 문화적 토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의 한 복음 (das eine Evangelium)(필자의 강조)을 전하고자 노력한 한 개인 혹은 공동체에 의하여 기록된 문헌들이다. 하나의 복음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될 때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전파될 때, 그 양자는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된다.”³¹⁾

29) 최태용, “조선복음교회적 방향”, 『최태용 전집 4』, 345-346쪽.

30) Volker Küster, *Theologie im Kontext: zugleich ein Versuch über die Minjungtheologie*, Nettetal, 1994, 18.

31) *EMW Informationen Nr. 110: Schritt halten mit Gott. Das Evangelium und unsere Kultur*. Ein deutscher Beitrag zur Vorbereitung der Weltmissionskonferenz im November 1996, erarbeitet von einer Arbeitsgruppe zum Studienprozess über Evangelium und Kultur, März 1996, 22-23쪽.

복음이 순수한 형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고 구체적인 교회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하는 최태용의 - 신학적 입장의 변화라고 오해될 수 있는 - 주장은 사실 그의 신학의 중심인 ‘영적 기독교’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태용의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상황성, 즉 복음과 상황 내지는 제도적 교회와의 긴장 관계는 이미 그가 말하는 ‘영’과 ‘진리’의 해석학적 긴장 관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론’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그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 및 ‘영’과 ‘진리’와의 해석학적 긴장 관계이다. 최태용에게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영이 구체화된 것’, 즉 ‘영의 언표’이다. 다시 말하여 진리는 ‘사람이 이해한 영’이다. “사람의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받은 바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언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태용의 진리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해석학적 동기를 발견한다. 영이 영 자체로만 머물러 있어서 인간의 이해와는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초월적 존재자만을 일컬을 뿐이다. 초월적 존재자인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될 때에만,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연장을 하나님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영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인 영의 구체화, 영의 현현, 영의 언표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인 동시에,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의 조건, 우리가 처한 역사적 정황 등을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상태가 조명되지 않으면, 영의 현현도 없다. 진리는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알려지지 않는다.³²⁾

이미 최태용 자신이 모든 신학적 주장의 근간으로 영과 진리를 이야기

32) 박승인, “최태용과 한국인 자신의 교회” 참조.

한다. “영과 진리는 모든 기독교 주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 논리이다. 모든 기독교 주장은 영과 진리를 그 구성 논리로 하고 언표된 것이다.”³³⁾ 영과 진리의 관계에서 복음과 교회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구체적 진리의 형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최태용의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한 교단으로서의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을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적 논지일 뿐 아니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설립의 불가결성을 주장하는 최태용의 선언이기도 하다. 영이 바르게 언표되기 위한 상황적 조건으로서 구체적 교회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데, 당시 조선에 있는 교회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태용은 당시 조선에 유입된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에서 당시 교회의 치명적 결함을 발견한다. 최태용에 의하면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근본주의가 아니면 이에 반하는 신비주의라는 양극단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근본주의는 이미 가진 신앙을 절대시하는 닫힌 체계의 신앙이다. 그 안에는 미래에 열려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생명성이 없다. 이미 안 것에 집착하는 신앙, 다시 말해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러한 굳어버린 신앙에는 생명이 없으며, 그 생명 없는 신앙으로는 조선 민족의 구원을 일구어낼 수 없음을 최태용은 본다. 근본주의적 보수신앙은 ‘영’과 ‘진리’의 역동적 관계를 모른다. 새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진리의 차원이 그러한 근본주의에는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신비주의는 굳어버린 신앙의 근본주의 제도적 교회에 반대하는 신앙운동이다. “교회가 제도적이지요, 법률적이지요, 말라붙은 신경이지요, 그리고 시비 분쟁인 데에 대한 반동으로 소위 기도꾼의 무리가 조선에 있다.”³⁴⁾ 그러나 그들의 경향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이교주의적인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

33) 최태용, “영적 기독교의 과제와 그 현재적 개정”, 『최태용 전집 5』, 79쪽.

34) 최태용, “신학상으로 본 조선 기독교회”, 『최태용 전집 4』, 495-496쪽.

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사람의 종교적 정서요 사람의 종교심의 발전이다.”³⁵⁾

굳어져버린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제도적 교회와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신비주의, 이 두 양극단을 지양하고 영이 진리로 현현할 수 있는 상황, 즉 복음이 그 본래적 의미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갈구가 복음교회 설립의 내적 근거이다. 그리하여 일견 무교회주의에서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 변화처럼 보이는 최태용의 교회론은 사실상은 그의 신학적 중심 주제의 지속적인 구현이며, 오늘날 신학적 논의의 중심 주제중 하나인 상황신학에 대한 선구자적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용이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창립하면서 주장한 표어중 하나인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는 (한국)교회에 관한 그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어이다. 조선인 자신의 교회라는 표어가 가리키는 일차적 의미는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으로서, 외국 선교사의 영향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갈구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조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미약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 교회가 외국인의 자선적 교회이었음에 있다.”³⁶⁾ 신앙의 용기가 교회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의 자선을 비료삼아 쉽게 세워진 화초 같은 교회는 ‘불원에 고사할 운명을 가진 것이었다.’³⁷⁾ 이에 복음교회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로 해나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용에게 있어서 교회의 일차적인 과제는 바른 복음의 선포에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한 조선의 교회에는 복음과 돈의 경중이 바뀌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곳에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교회 장사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최태용은 차라리 그 모든 원조로부터 자유로운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부르짖은 것이다. 경제 논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35) 최태용, “우리의 신앙 고백”, 『최태용 전집 4』, 294쪽.

36) 앞의 논문, 299쪽.

37) 앞의 논문.

역사하는 교회, 영의 언표로서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최태용이 제창하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다.

조선인 자신의 교회라는 표어의 더 중요한 이차적 의미는 교회의 내적 조건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신앙과 신학이 구현되는 교회를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신학을 되뇌는 신학이 아닌 우리의 신학,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 전통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신학,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독교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스스로를 드러내되, 한국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언표되는 진리, 그래서 한국인도 그 진리를 한국적인 사유와 언어로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규정하는 내적인 조건이다.

5. 맺는말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채수일은 현재 한국 교회의 개혁이 문제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에 관계된 것, 기구와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계된 것-로 요약한다.

성직자와 신자의 각종 스캔들에서부터 지도층 인사들의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각종 신학교의 난립과 명분 없는 교과 분열, 재산권과 교권을 중심으로 한 다툼, 대형교회의 세습, 교회의 양극화 등은 당사자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 기독교와 한국 교회 자체의 이미지는 물론 종교로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로서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친미 반공주의, 정치-경제 권력과의 유착, 교회 안의 성차별과 성폭력,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직자 중심주의, 대형교회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무분별하고 전투적인 해외 선교 행태 등이 비판의 표적에 들어올 것이다.³⁸⁾

38) 채수일,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신학적 비판”,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학적 비판임을 채수일은 역설한다. 교회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비판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문제의 “근본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보다 급진적”³⁹⁾이라는 사실에 신학적 비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채수일은 교회의 물량주의적 대형화 추구, 교과 분열의 결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부수된 돈의 문제, 신학적 문제로서의 부정부패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⁴⁰⁾

채수일의 현재 한국 교회 비판의 소리에 비추어볼 때, 최태용의 교회(갱신)론은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태용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현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바른 교회의 모습은 실로 신학의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 “교회의 성격과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질문들은 기독교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이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심적”⁴¹⁾인 문제이다.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강조하는 칼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한 선포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말씀만으로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자체로 - 그리고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통하여 - 이미 말하고 있다.”⁴²⁾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서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설립한 최태용의 교회론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의 유물로 과기될 수 없다. 그의 교회론에 기초한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적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참 교회의 대안을 제시한 한국의 교회 현실이 아직도 잔존하는 한, 그의 교회(갱신)론은 아직 유효할 뿐 아니라,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❷

편, 「시대와 민중신학 제7호 2002」 (서울: 다산글방, 2002), 11쪽.

39) 앞의 논문, 12쪽.

40) 앞의 논문, 13-19쪽 참조.

41) 다니엘 L. 미글리오리/ 이정배 옮김, 『조직신학입문-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284쪽.

42) Karl Barth,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Zürich: EVZ-Verlag, 1962), 46쪽.